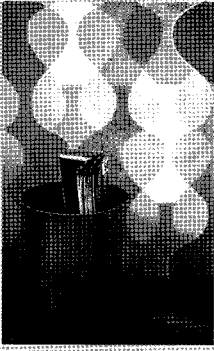




생활문화



- [위대한결단—마크 주커버그] 하버드 악동에서 세계적 인물로
- [위대한결단—송승환] '난타'로 세계를 난타하다
- [위대한결단—진시황] 최초로 중국을 통일시킨 황제
- [위대한결단—레온 플레이서] 기적을 포기하지 마라
- [위대한결단—줄리안 어산지] 나는 진실을 쫓는 혁명가다
- [위대한결단—포슈어] 자기를 버리고 친구를 살린 우정
- [위대한결단—다루미 시게루] 모든 일은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됐다

Life & Culture 01 [위대한결단 —마크 주커버그]

하버드 악동에서 세계적 인물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010년 '올해의 인물'로 26세의 청년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1984~)를 선정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의 설립자이자 CEO인 이 청년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하버드대 심리학과에 다니는 사고뭉치 학생에 불과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광이었던 주커버그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프트웨어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프로그래머였다. 그는 2학년 때 기숙사의 '얼짱' 여학생 사진을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올려 인기투표를 실시한 사건으로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할 뻔하는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주커버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기회가 있음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일약 컴퓨터 프로그램 '신동'이자 하버드의 '악동'으로 유명세를 탄 그는 2004년 2월 4일, 하버드대학의 재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이트 페이스북을 오픈했다. '학생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든 이 사이트는 2주일 만에 하버드 전체로 확산됐고, 2달 만에 아이비리그의 유명 대학은 물론 미국 전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다. 엄청난 규모로 광고 수익이 늘어나자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두기에 이른다.

이렇게 출발한 페이스북은 창업 6년만인 2010년 7월, 5억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인터넷 인맥 사이트로 성장했고, 주커버그는 구글을 위협하는 IT계의 영웅이 되었다. 사용자 5억 명이란 전 세계 인구의 8%, 인

터넷 사용자의 27%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인구 14명 중 한 명이 페이스북 사용자인 셈이다. 가히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매개체가 등장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최대 성공요인으로 개방성, 즉 오픈 플랫폼을 들고 있다. 주커버그는 타 사이트들과 달리 울타리를 활짝 열어 놓은 초대형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오픈 플랫폼은 무엇이든지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했다. 페이스북은 온·오프라인의 간격을 좁혀놓으면서 사회적 계급과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실명제를 실시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탓에 가입자들은 안심하고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놀라운 '친구 추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자가 출신 학교나 직장, 취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친구 추천이라는 형식으로 경력이 겹치는 인물들을 찾아내 준다. 한줄 블로그에서부터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서 가입자가 지닌 모든 요소들이 만남의 고리로 작용한다.

2010년 3월 첫째 주 미국 인터넷 이용자 분석 결과 페이스북이 구글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BBC는 최근 '페이스북은 국경·계급의 벽을 무너뜨리며 친구가 친구로 이어지면서 이용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주커버그

는 이용자가 5억 명을 넘어 선 것을 알리는 글에서 “페이스북의 임무는 세계를 더 열린사회로 만들고 서

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ife & Culture 02 [위대한결단—송승환]

‘난타’로 세계를 난타하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을 한다. 그런 자신감이 세계적 한류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 한류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송승환(1957~)이다. 그는 영화감독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아역배

우로 출발해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국민적 스타였다. 배우생활을 하면서 별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었으나 남이 써준 대본대로,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배우생활에 회의를 느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싶었다.

그는 절정의 인기를 구가할 때, 돌연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극단 ‘환 퍼포먼스’를 창단하고 암중모색을 하던 그는 우리 고유의 리듬과 공간에 주목했다.

그리고 1997년 사물놀이의 리듬이 갖고 있는 원시적 폭발력을 제대로 표현한 ‘난타(亂打, NANTIA)’를 만들어냈다. 난타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대사 없는 퍼포먼스로 구성한 작품인데, 주방 요리사들의 여러 에피소드를 소재로 칼과 도마, 프라이팬 등을 사용해서 가장 한국적인 가락으로 힘과 속도감이 넘치는 무대를 연출해냈다. 친근한 소재에 한국적인 사물놀이 가락은 국내 공연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거기에서 가능성을 엿본 송승환은 난타로 세계무대를 열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해마다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공연물이 참가하는 연극 축제였다.

하지만 그곳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가 경비가 턱없이 모자랐다. 평소 ‘난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입버릇처럼 칭찬하던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는 IMF 한파로 국내 경제가 바닥을 쳤던 시기였다. 친구는 자신의 집을 저당 잡혀 돈을 만들어 주며 “꼭 성공해라. 내 아내에게는 비밀이다”란 말을 했다. 다행히 난타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현지 매스컴의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성공했고, 그는 해외공연 계약금으로 친구에게서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시작한 난타는 37개국 232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문화 마케팅의 선구적인 길을 제시하게 된다. 난타는 국내 최장기 공연, 최다 관객을 동원한 것은 물론 2004년에는 미국 브로드웨이에도 상설 공연장을 개관하는 등 수많은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997년 10월 초연된 공연 ‘난타’는 10주년 기념 공

연을 맞이한 2007년까지 약 700억 원을 벌어들인 문화예술계의 최고 히트 상품이 되었다. 난타 공연은 2010년 역대 최고인 80만 관객이 들어서 처음으로 매출 200억 원을 돌파했다.

난타가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적이고 드라마적 요소를 담은 ‘언어 없는 연극’에 우리 특유의 전통 사물놀이 가락을 조화를 이뤄내면서 독특한 재미와 매력을 더했기 때문이다. 지난 14

년간의 난타 공연으로 칼 1만6000여개, 도마 1500여개’가 닳아서 없어졌다고 말하는 송승환은 이렇게 말한다.

“좋아서 하는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벌써 14년이 아니라 아직 14년밖에 안 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난타’는 이제 겨우 14살입니다. 런던에서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쥐뿔’이 57년째 공연 중입니다.”

Life & Culture 03 [위대한결단—진시황]

최초로 중국을 통일시킨 황제



진시황(秦始皇, 기원전 259~ 기원전 210년)

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시킨 인물이다. 그가 대륙을 통일하기 이전에 중국(中國)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

다. 대륙은 춘추전국 시

대를 거치면서 수십 개로 쪼개져 분립되어 있었다. 중국인들은 진시황이 대륙을 통일 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과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대규모의 토목공사인 만리장성 축조공사로 수십만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희대의 문화탄압사건인 분서갱유(焚書坑儒)사건을 일으켜서 동양문화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으며, 불

로장생의 약이 있다고 믿고 불로초를 찾으려는 지나친 집착을 보인 탓이다.

그러나 진시황은 오늘날의 중국을 존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중국 역사상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분열된 중국 대륙을 무력으로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통일 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승상 이사의 의견을 따라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현제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모든 결재는 자신이 직접 챙겼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정력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황제 제도와 군현제를 닦음으로써, 이후 2천년 중국 왕조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진시황은 대륙을 통일하자마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제정했다. 그가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도량형의 통일이었다. 지역마다 다른 계량단위 때문에 도무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단일국가에는 단일 단위가 통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한 홉, 한 되, 한 말이라든가, 길이의 단위인 보(步), 장(丈) 등을 통일시켰다. 더불어 그는 진(秦)

의 화폐를 전국에서 통용시킴으로서 산업과 경제의 발달을 가져 오게 했다.

또한 진시황은 전국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각지의 교통체계를 강화했다. 그의 통일정책으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수레바퀴 폭의 통일이다. 그는 전국에 '지도(馳道)'라는 도로를 만들고 차륜의 폭을 통일시킴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후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문자의 통일이었다. 당시 전국시대의 7웅은 각 나라마다 글자의 형태가 달랐다. 은나라의 갑골문자에서 유래된 글자가 근본을 이루기는 했으나 지역에 따라서 글씨 모양이 달랐던 까닭에 전국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없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소전이란 글자의 형태를 천하의 문자로 정했고 이 문자

를 전국에서 통용시키도록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한자가 된 것이다.

진시황은 이러한 통일 사업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실시해 나갔다. 도량형과 화폐, 문자 등의 통일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데 커다란 힘이 됐다. 그러나 국토나 도량형, 문자 따위의 통일 뿐 아니라 분서갱유를 통해서 사상의 통일까지 이루려고 했던 진나라는 통일작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스스로 단명을 초래했다. 하지만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20년도 안되어 단명한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이 일으킨 사업들은 오늘날까지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근본으로 남아 있다. 그는 단순히 국토통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참된 뜻으로의 천하통일을 이루었던 것이다.

Life & Culture 04 [위대한결단—레온 플레이셔]

기적을 포기하지 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레온 플레이셔(Leon Fleisher : 1928~)는 정말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는 4세부터 연주생활을 시작하고, 8세 때 최초의 공개연주회를 가졌으며, 1952년 퀸 엘리자베스콩쿠르(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우승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미국에 안겨준, 천재적 재능을 지닌 미국이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연주를 들



은 사람들은 그의 선율이 내쏘는 메타포에 매료되어 연주가 끝나도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몰랐다. 특히 '베토벤과 브람스에 관한 최고의 연주자'란 찬사를 받았다.

그런 레온 플레이셔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 최고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30대 중반에(1964~1965) 갑자기 오른손 근육경직이 진행된 것이다. 오른손의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에 마비 증세가 시작됐다.

피아니스트로서는 사형 선고가 아닐 수 없었다.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점점 두 손가락이 말려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무

대를 떠나게 되었다. 음악이 전부였던 그는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 그가 깊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헤매자 결국 아내마저 곁을 떠났다. 그렇게 2년 이상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그는 홀연히 깨닫는다.

‘나에게는 아직 왼손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날 이후 레온 플레이어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난다.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대신, 보다 넓은 음악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1967년, 그는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지휘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다. 놀랍게도 세상에는 1천 곡이 넘는 왼손만을 위한 연주곡들이 존재했다. 그는 왼손연주를 통해 피아니스트로서도 거듭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많은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새로운 왼손 연주용 음악을 작곡해 헌정했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났다. 1995년 레온 플레이어는 양손연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K. 414를 연주하면서 기적적인 재기에 성공했다. 그의 손이 현대의학의 끈질긴 치료와 실험을 통해 재활에 성공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험난하고 외로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두 손을 가지고

돌아온 거장의 귀환을 반겼다.

30년 이상 오른손의 ‘근육긴장이상증(dystonia)’을 앓아온 그가 아닌가. 그 오랜 시간 그는 지휘자와 교수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오른손의 감각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재활을 가능케한 것은 주름살 제거에 널리 사용되는 보톡스(Botox)를 이환된 손가락 부위에 주사하는 것이었다. 이 치료를 통해 오그라들어 있던 그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마침내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물리치료의 일종인 롤핑(Rolfing)을 병행하면서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한결 유연해졌다. 그는 양손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피나는 노력 끝에 75세의 나이에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얼마나 심각한 불행을 딛고 마침내 승리했는가하는 인내력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가능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말한다.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There is always hope)”라고. 2000년 그는 살아있는 음악가로서는 최초로 ‘클래식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Life & Culture 05 [위대한결단—줄리안 어산지]

나는 진실을 쫓는 혁명가다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제4의 권력 언론을 넘어서는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사이트는 고발·폭로 전문 소셜 미디어인 ‘위키리크스(wikileaks.org)’다. 위키리크스는 25만건에 달하는

미국무부의 비밀문서들을 공개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패닉 상태에 빠트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

또 최근에는 튀니지 독재정권의 부패상을 폭로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켜 대통령을 축출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튀니지 사태에 대해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는 '첫 번째 위키리크스 혁명'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 : 1971~)는 한때 이름을 날렸던 해커 출신 프로그래머였다. 호주에서 태어난 그는 유랑극단을 운영했던 부모를 둔 탓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산지는 14세가 될 때까지 37번이나 이사를 다녔으며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는 자연스레 반항의식을 갖게 되었고 컴퓨터에 빠지는 청소년기에는 해커그룹을 결성해 활동했다. 그의 해커활동은 호주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었고 그 때문에 그의 가정은 파탄이 났다.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다.

해커활동으로 체포를 당하고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산지는 경찰과 법원이 개인에게 너무도 억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항아적인 기질을 지닌 그는 해커 시절의 신념을 살려 법과 제도에 도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2006년, 그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설립했다. 그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하면서 밝힌 것은 언론의 자유, 폭로를 통한 잘못된 가리기, 역사적 기록의 보관 등 세 가지였다. 위키리크스는 설립 4년째를 맞은 2010년 전 세계 '태풍의 눈'으로 떠올



랐다.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로이터 기자 등 민간인 12명을 사살하는 생생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였다. 완벽한 궁지에 몰린 미국 정부는 어산지를 '스파이 혐의'로 처벌하려고 했으나 호주 국적인 그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무엇이 어산지에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적'이 되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그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말한다.

“오직 자유로운 언론만이 정부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 자유로운 언론의 책임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타지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하거나, 테러 및 폭격에 의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와 정의가 결핍된 곳에서는 윤리적으로 무장된 시민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모든 독재정권과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기관 및 비윤리적인 기업들에게 있어 단순히 국제적 외교관계, 선거,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밝히는 위키리크스의 기본 철학은 각국의 정부나 기관들 내부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양심과 윤리관을 회복하는 일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발적인 위력은 주류 언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산지는 201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온라인 투표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ife & Culture 06 [위대한결단—포숙아]

자기를 버리고 친구를 살린 우정



중국 역사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람들로 포숙아(鮑叔牙)와 관중(管仲)의 이

이야기가 있다.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 살았던 두 사람은 죽마고우였다. 관중은 젊었을 때에 집이 가난하여 포숙아와 함께 장사를 했는데 언제나 돈은 많이 가져갔다. 그러나 포숙아는 이를 알고도 관중을 탓하지 않았다. 관중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었다. 관중이 전장에 나가다가 도망쳐 왔을 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관중을 손가락질할 때도 포숙아는 관중이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무렵 제나라에서는 소백(小白)과 규(糾)라는 두 왕자 사이에 정권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두 사람은 적이 되고 말았다. 관중은 규의 밑에 들어가 일했고, 포숙아는 소백을 섬겼던 것이다. 두 왕자가 싸움을 벌이는 틈에 관중과 포숙아는 어쩔 수 없이 적이 되었다.

활 실력이 출중한 관중은 상대편 왕자인 소백에게 활을 쏘았다. 화살은 명중했고 소백은 말에서 떨어졌다. 왕자 규의 군대는 복부에 화살을 맞은 소백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자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성으로 천천히 진군했다.

그러나 소백은 허리띠에 화살을 맞은 탓에 살아났고 재빨리 도성으로 진입해서 정권을 잡았다. 결국 이 싸움에서 규는 패해서 죽었고, 관중은 포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소백이 즉위하니 그가 곧 제나라 환공이다. 환공은 관중을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참모인 포숙아가 목숨을 걸고 나서며 말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을 죽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포숙아는 관중은 유능한 인재이니 절대 죽이지 말고 오히려 재상의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순간, 환공은 어리둥절해서 포숙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나라의 재상 자리는 그대의 것인데 어찌 과인을 해치려던 자에게 넘겨주라하는 것인가?”

“왕께서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臣)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환공은 포숙아의 너른 식견과 어진 마음씨를 익히는 탓에 마지못해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포숙아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던 재상의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했다. 관중은 친구 포숙아가 자신을 살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던 재상의 자리를 양보한 것에 감격했다. 재상이 되자 과연 관중의 재능은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환공을 도와 제나라의 문물을 정비하고 부국강병의 정책을 펼쳐서 환공이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훗날 관중은 포숙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남겼다.

“진실로 나를 낳아 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

준 이는 포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叔也)”

그들은 때로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으나 죽는 날까지 그들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러한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을 일컬어 관포지교

(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로 칭찬해 마지않았다. 관중과 포숙아의 이야기는 참된 친구가 어떤 권력이나 부를 얻는 것보다 값진 것임을 깨우쳐준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재능보다 오히려 친구를 잘 이해해준 포숙아의 인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Life & Culture 07 [위대한결단—다루미 시게루]

모든 일은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됐다

일개 두부 공장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다. 도쿄의 영세한 두부가게의 장남으로 태어난 다루미 시게루(1963~)는 3대째 두부를 만들어 팔던 평범한 두부공장 사장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 ‘노랑계 염색한 긴 머리에다 반바지와 비치 샌들을 신은 전형적인 동네 날건달’ 같은 외모를 하고 다녔다. 그는 교사가 되길 원했으나 성적이 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업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한심한 청년이기도 했다.



원래 다혈질인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세 가지를 결심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두부장수를 하더라도 넥타이를 매고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성공해서 벤츠를 타고 다니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가 아는 최고급 차가 벤츠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월 매출 65만 엔의 작은 두부가게를 13년 만에 매출 8억 엔의 두부 제조 기업을 만들어냈고, 2003년 일본 두부 업체로는 최초로 도쿄증시에 주식을 상장해 벤처 신화를 이룩했다. 그것은 ‘일본 제일의 두부장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두부 한 모를 팔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는 납품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는 것이 싫어서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슈퍼마켓 도매업을 포기했다. 그것은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슈퍼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두부를 만들어보자’는 제품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두부사업을 시작한 첫날 거래처 슈퍼마켓을 찾아 갔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드는 한 마디를 들었다. 슈퍼에서 일하던 애송이로부터 “아이, 두부장수, 거기 좀 비켜”라는 호통을 들었던 것이다. 그 한 마디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인 그를 분발시켰다.

그는 창업 2년째에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두부란 과연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공부했다. 그 공부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의 두부 소비는 연두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천연간수

로 만든 연두부가 없다는 것이었다. 천연간수로 만든 일반두부는 있어도 천연간수로 만든 연두부는 없었다. 천연간수를 사용하면 연두부 특유의 매끈매끈한 느낌을 낼 수 없다. 어떻게 해도 일반 두부처럼 거칠거칠한 느낌이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연간수로 응고한 진짜 연두부를 만들어보자.’ 천연간수를 사용한 연두부의 개발은 이렇게 시작됐다.

다루미 시게루는 천연간수로 만든 연두부를 만들기 위해 올인했다. 그는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마침내 천연간수로 만든 연두부를 탄생시켰다. ‘거꾸로 발상법’에 의해 기존

두부업계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만든 연두부는 일본 두부시장을 석권해 나갔고, 1만2천개의 일본 두부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하는 기업이 됐다.

그것은 두부 한 모를 팔아도 사업가 마인드를 갖는다는 그의 사업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루미 시게루는 주식 상장 후, M&A를 통해 2005년 9월 결산에서는 매출액이 연결베이스로 43억 1600만 엔(320억 원), 경상이익이 3억 800만 엔, 당기 순이익이 7300만 엔을 기록하며 일본재계의 신화적인 인물로 주목받았다.

